

2004년 치킨전문점 시장 전망



장영학 팀장
(주)제너시스 BBQ 마케팅팀

창업 업전문 잡지사에서 지난 11월에 서울시내 192 개 치킨 전문점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보인 사업자가 78%나 되었다.

군소형 치킨 전문점이 주택가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 '중국집'만큼 많이 생긴지가 2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꾸준한 인기를 끌고있는 비결에 대해 응답자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수요가 꾸준하고 마진이 높다'는 응답을 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치킨전문점은 투자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치킨전문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다만 2003년 한 해 동안 전 업종이 불황을 겪는 가운데 어떤 사업 아이템도 자신있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창업 환경을 고려한다면 치킨전문점은 '안정성'을 무기로 2004년에도 투자대상에서 상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 위축으로 소자본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치킨전문점의 창업 방식을 추천함에 있어 프랜차이즈와 독립창업의 비중이 비슷하게 같았다. 프랜차이즈는 수고가 덜하다는 이점이 각광받았고, 독립창업은 마진이 높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프랜차이즈 방식의 치킨전문점은 30%대, 독립창업 방식은 약 40%대의 마진율을 보인다. 하지만 공동구매와 물류, 마케팅을 구사하며 막강한 브랜드파워를 형성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위력은 시간이 갈수록 독립창업자의 자리를 무너뜨려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들면 1995년에 탄생해 2003년 말 현재 전국에 1,550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BBQ의 경우 적시에 출시되는 신제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일체화 교육', 연중 상시로 진행되는 판촉활동과 연간 100억 원의 광고, 꾸준한 가맹점 관리를 통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익으로만 따져도 조사된 치킨전문점 사업자들이 월평균 1,5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BBQ 전국 1550개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2,000만원에 가깝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위력은 연말에 닥친 가금인플루엔자 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BBQ의 경우 20%의 매출하락이 있었으나, 군소 브랜드나 개인창업자의 경우 50%까지 매출이 급감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믿고 소비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하면서도 본사의 광고나 홍보가 부족해 만족할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개인사업자들이 53%나 되었다. 본사 입장에서는 고객서비스 분야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손꼽는 것과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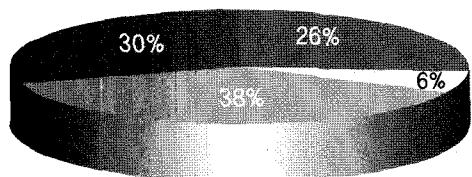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향을 살펴보면 가맹점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본사도 돈을 벌 수 없다는 프랜차이즈 본연의 사업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수익중 상당 부분을 광고 등의 마케팅 비용에 재투자 하고 있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자신의 영

업구역 내에서는 전단지 배포, 시식회 등의 자발적인 '점포알리기'가 뒤따라 주지 않으면 쉽게 매출을 끌어 올릴 수 없다. 오히려 부실한 고객 서비스 때문에 고객을 잃는 경우만 방지해도 광고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2004년 치킨전문점 시장은 5%대의 경기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실업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수요는 창업 시장에서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억원 안팎의 창업자금이 필요한 소자본 창업시장 역시 그 인기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소자본 창업의 대표인 치킨전문점을 창업하는 것만으로 '월급보다 나은' 수익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맛과 서비스 등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사업 기반을 닦고, 고객을 확보한 이후 쉼없이 관리하는 노력만이 '치킨전문점 불패' 역사를 2004년에도 새롭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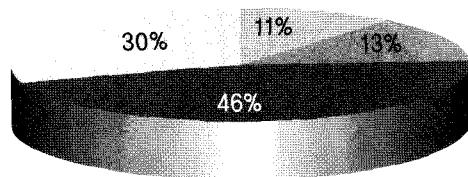
〈그림 1〉 치킨 전문점을 창업하게 된 동기는?



- 꾸준한수요 ■ 높은마진 ■ 특별한 기술없이 가능
- 소자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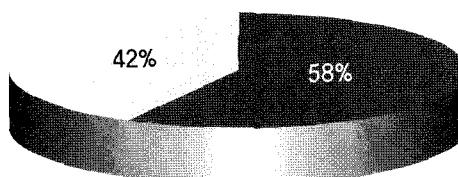
※자료 : 창업&프랜차이즈(2003년 12월)

〈그림 2〉 운영중인 치킨전문점의 마진율은?



- 25%이하 ■ 30%이하 ■ 30%이하 ■ 40%이하

〈그림 3〉 수익성이나 점포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점포형태는 어떤 것이 나은가?



- 가맹점 ■ 독립점포

※자료 : 창업&프랜차이즈(2003년 12월)